

# 농생명 바이오 융합산업 활성화 모색

### 김관영 지사, 농생명 바이오 융합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 전문가적 업무역량 강화·도정발전 방향 논의 등

김관영 도지사가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19일 오전 7시 30분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7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열고 '데이터 기반 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주제로 공부와 열띤 토론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7월 새로운 전북 월례 포럼에 김관영 도지사가 권기현 한국식품연구원 디지털팩토리사업단 단장으로 부터 '데이터 기반 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주제로 특강을 듣고 토론을 갖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식품연구원 권기현 디지털팩토리사업단 단장 특강,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변화의 흐름은 빠르고 우리가 공부할 게 많다. 이는 만큼 보인다"며, "이번달부터는 아침 공부 모임을 한 달에 두 번 하고, 내년부터는 매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도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정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알찬 강의를 계속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농업에도 인공지능

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우리가 스마트 농생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공부해 보기 위해 오늘 강의를 준비했다"며, 네 번째 포럼 주제를 '농생명'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한국식품연구원 권기현 디지털팩토리사업단 단장은 데이터 기반 바이오 소재 산업화 제언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농생명 산업수도로써 전라북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권 단장은 강의에서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온실인 에어로 팜으로 기술 변화가 되고 있다"며, "특용 작물 기반의 바이오 소재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농기계, 미생물, 종자 등 전라북도 농생명 연관 수요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북의 특화 산업인 스마트농생명융합산업의 육성과 함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에어로팜, 바이오소재 및 테크 푸드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한편, 전북도는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매달 두 번씩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조선업 구인난 개선 '총력'

### '전북조선업도약센터' 운영... 상반기 687명 취업 지원 일자리매칭데이·취업캠프 등 조선업 특화 고용서비스 추진

군산시는 19일 조선업 특화 취업지원 플랫폼으로 전북조선업도약센터를 운영해 올 상반기 동안 조선업 관련 기업에 687명의 취업을 지원하며 목표대비 137%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동안 조선업 구인난 개선을 위해 조선업 일자리매칭데이(3회), 취업캠프(2회), 직무특강(3회) 등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술수당 및 장려금 지원 등 조선업 특화 고용서비스를 추진했다.

특히,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조선업 관련 직무연계를 위한 전문상담사 1:1 조선업 매칭 서비스를 통해 1,600여명에게 취업상담, 전직지원 및 직업훈련을 지원했다.

또한 조선업 기술인력 수급 해소와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조선업종 기업 신규취업자가 1년동안 1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전북도가 4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6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전북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는 21일에는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조선업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조선업 인식개선 의 날 행사를 개최해 선박 제조 과

정 등 조선업 직무설명, 채용정보 안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과 조선업 관련 직업훈련생 등 직무 특화자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조선업도약센터는 올해 하반기에도 조선업 직무인식 개선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8월~10월까지 취업캠프 및 직무인식 개선 교육을 매월 진행할 계획이며, 9월 중에는 '전북도 일자리 페스티벌'에 참여해 도내 조선업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매칭데이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선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북조선업도약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조선업 신규고용 창출, 고용유지, 숙련 기술전수 및 고도화까지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산조선소의 원전 가동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 조선업 채용기업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조선업도약센터 홈페이지(<http://www.jumpjob.or.kr>) 공지사항 및 채용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 전북도-코트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맞손'

### 무역·투자유치·일자리 분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KOTRA(사장 유정열)는 19일 전북도청에서 무역, 투자유치,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KOTRA와 전북도는 △무역투자 등 관련 정보교류 △전북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 △전북 주력산업 연계 외국인 투자 및 국내 복귀기업 유치 협력 △국내외 취업·창업 지원과 일자리 협력 △국제·문화 교류 증진 등을 추진한다.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 유정열 KOTRA 사장, 정운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 투자유치,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해외 진출 투자유치 활성화를 적극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농생명산업의 강점과 이차전지를 비롯한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통상정책을 총괄하며 쌓은 코트라의 노하우와 전북의 잠재력이 결합해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자"고 말했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세계 경기둔화와 수출감소로 지방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자체와 KOTRA가 지방 기업들을 위한 촘촘한 수출지원 그물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OTRA는 전북도청과 협력하여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업이 해외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도, 오늘부터 고금리 대응 거처기간 연장 지원 시행

전북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응해 20일부터 고금리 대응 거처기간 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원금상환이 도래된 기업 700여 개사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거처기간 연장 지원 사업'을 통해 거처기간을 이미 연장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은 결정일로부터 1년간 거처기간 연장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도중소기업 육성 자금 통합관리 시스템'(<http://fund.jhba.kr>) 누리집을 통해 원금 상환일 도래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절차를 위해 연장 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전라북도 기업정보조회시스템(☎063-280-3228) 또는 전북도 경제정보시스템(☎063-711-2021~2)으로 세부절차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재난관리물품 재난현장 지원

### 재난관리지원 광역거점센터 비축 물품 군산 등 수해장소 보급 이재민 대피장소 피난물품세트 지원·재난 심리상담 활동

지난3일부터 19일까지 도내에 평균 410mm 가량의 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전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지원 광역거점센터(이하 센터)에 비축된 물품을 군산·익산·완주·부안 등 재난현장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먼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물길을 차단하고, 하천변 유실을 방지하고 재 순환수성수매 5,100매, 톤백 400매 등을 공급했다.

또한 침수 피해 지역 익산 15개소(318명)와 사천 대피 지역 김제 1개소(88명) 총 404명에게 피난물품 세트를 지급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안심헬터 설치와 위생용품도 지급하며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재난사회복지지원 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활동도 병행했다.

그간 전북도는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70여종의 물품을 비축하고, 재난현장에 1~2시간내 보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갖췄다. 이에 재난 초기대응에는 시·군 개별 비축물품을 보급하고, 대응·복구를 위한 물품은 도 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기관 등과 재난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보유한 비축 물품을 상시 응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실제 이번 익산 망성면 기름 유출에 대응할 때 부속지원원 기름 흡착포 등을 부안해안경찰서에서 지원 받았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는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 필요 자원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비축물품 관리 및 대응에 철자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모 집** 우석대, 전주교육대, 전북과학대, 원광대, 군산대, 남원평생스피치웃음코칭과정 모집

스피치·긴장해소·웃음코칭·리더쉽, 면접

◎모집대상: 대학, 일반인 남녀 누구나 ◎매주 1회 수업(주산, 야산)  
◎등록방법: 전화접수, 팩스접수, 방문접수 가능  
◎전화: 063-285-6676, 010-7304-5665

※7월~8월 과정은 우석대, 원광대에서 강의함  
※2학기 모집은 수시로 하며 9월 개강합니다.  
※개인지도: 면접, 연설, 웅변, 시낭송, 인사말 등 상담 환영

김양욱 (사)한국스피치웃음협회 전북본부 회장이 직접 지도함.

---

**환 영** 장수군 천천면 금강다슬기축제를 위한 제1회 천천사랑 전국 트로트가요제

금강의 상류 청정지역 장수군 천천에서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관광홍보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하는 가요제에 참가를 기원합니다.

①일시 : 2023년 8월 12일(토) 오전 10시예선, 본선 오후 4시30분  
②장소 :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11, 축제특설무대  
③주최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본부  
④주관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장수군지부  
⑤참고 : 본 대회는 각 전국대회에서 대상(1등) 수상자는 제외함  
⑥접수 문의 : (063)231-6669, 010-7304-5665, 010-4658-8198  
⑦참가자는 일만원 경비 납부요망 (접수자는 인쇄함)

전북회장 김양욱, 장수군지부장 김을만(장수군민) 올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